『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진로고민 』

# 진로진학 Q & A 50선

한국고용정보원

# - 목 차 -


| I. 직업·진로문제 | |
|---|---|
| 공통질문 | 1. 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나요?<br>2. 잘 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br>3.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직업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신이 없어요.<br>4. 직업과 제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br>5.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 또는 전문직을 갖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br>6. 관심 있는 두 분야가 너무 달라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br>7.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포기해야 할까요?<br>8. 직업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
| 세부질문 | 10.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br>11. 사무직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요?<br>12. 전문직은 여유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던데 사실인가요?<br>13. 제가 관심 있는 직업의 실제 모습이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점이 힘들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br>14.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은 너무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에요. 더 다양한 직업을 알고 싶어요.<br>15.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과를 나오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 II. 진학문제 | |
| 공통질문 | 16. 학과를 결정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돼요.<br>17. 가고 싶은 학과가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br>18.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요. 일단 성적에 맞춰서 아무 학과나 들어가야 할까요?<br>19. 적성검사 결과와 다른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까요?<br>20.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학교 또는 원하는 학과로 진학해야 할까요?<br>21. 미래를 위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br>22.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너무 늦는 걸까요?<br>23.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로 유명한 학교를 알고 싶어요.<br>24. 대학에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br>25. 상위권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원하는 학과에 맞춰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br>26.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부모님은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갈 수 있는 학과에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 | |
|---|---|
| | 27.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 전문대에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4년제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br>28. 서울에 있는 점수가 낮은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방 국립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br>29. 원하는 학과에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br>30.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
| 세부질문 | 31. 문과는 졸업 후에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가요?<br>32. 이공계열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br>33. 자연계열 학과와 공학계열 학과 사이에서 고민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br>34. 사회과학계열 학과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하나요?<br>35. 문과이지만 간호대에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br>36. 외국어를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br>37. 정보보안 관련 학과의 전망은 어떤가요? 졸업 후의 진출분야도 궁금합니다.<br>38. 심리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br>39. 농업계열의 학과를 나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br>40.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중 어떤 학과의 전망이 더 좋은가요?<br>41.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br>42. 교대나 사범대를 갈 성적이 되지 않는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br>43.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와 지방 국립대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br>44. 가고 싶은 과가 있지만 어려운 과목도 있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br>45.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일반적인 학과 대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방 소재 학과(의대, 약대, 사대 등)로 진학하는 게 나을까요?<br>46. 앞으로 유망한 학과에 대해 알고 싶어요.<br>47. 새로 생겨나거나 특이한 학과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요?<br>48. 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학과와 관련된 설명회나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br>49. 대학 입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br>50. 편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1. 진로·직업문제

# Q. 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나요?

## A.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보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생계를 위하여 반드시 보수가 지급되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목적에서입니다. 직업을 가져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직업을 가집니다. 직업은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집단을 형성해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직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라는 직업은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나 사회 같은 큰 집단이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데 필요한 일을 합니다. 이처럼 각 구성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통해 맡은 일을 잘 수행해 나가면 사회도 잘 굴러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셋째,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일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흥미, 또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직업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나 사회적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는 직업을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 보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2. 진로·직업문제

## Q. 잘 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잘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충분히 생각해보거나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일이 있고, 한가지쯤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때는 너무 대단하고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사소한 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넌 이러한 점이 좋아'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굳이 직업, 학교 공부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아하고 잘 하는 과목을 보고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등 어학 과목에 관심이 많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교사, 통역사, 해외영업전문가 등의 말하기 능력이 중요한 직업이나 작가, 번역가, 기자 등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직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흥미와 적성 외에 제 3의 조건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결정할 때 흥미와 적성에 맞춰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따라 흥미와 적성이 뚜렷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흥미와 적성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미가 뚜렷해서 정말 그걸 꼭 해야 행복하지만, 두루 흥미가 있거나 또는 뚜렷한 흥미영역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흥미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은 흥미에 맞는 영역을 찾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기 보다는 가치관, 성격 등 다른 특성들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업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여행,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접하면 관심 가는 분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폭을 점점 좁혀간다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3. 진로·직업문제

## Q.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직업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신이 없어요.

**A.**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민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직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직업목표에 대한 불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신체가 발달하듯 개인의 흥미나 적성도 변화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꿈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이유가 새로운 직업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라면, 새로운 직업목표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필요한 지식, 흥미, 능력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면서 현재 자신이 가진 특성과 잘 맞는 분야인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 능력, 인성을 키우기 위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새로운 목표가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생각한 직업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과감하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어떤 학생들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학과 등 외부의 상황에 의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막연한 불안으로 혼란스러워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지금의 준비과정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공부방법을 바꾸거나 분위기 전환이나 재충전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더욱 집중해나가는 것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성공한 직업인들도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완벽하게 만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뒤집어보면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진로·직업문제

## Q. 직업과 제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치관이라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직업을 고려할 때 생각해보아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의 하나인데요, 흥미, 적성, 성격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가치관이 일치한다면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고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사업가, 서비스업 종사자, 간호사, 혹은 사회봉사자와 같은 직업이 최선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는 흥미, 적성, 성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가치관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봉사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영업직이나 금융 분야 등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직업의 특성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자체에서 가치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사회단체 등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업 안에서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직업과 가치관이 일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치관을 충족시켜나가는 것도 직업과 가치관을 조화롭게 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5. 진로·직업문제

## Q.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 또는 전문직을 갖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A.**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나 전문직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누구나 희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기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은 전문직이고 또 어떤 직업은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직이란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그 분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을 전문직이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한 기준으로 전문직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학력이나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의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처럼 관련된 전공을 반드시 마친 후 국가에서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금융 분야의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여 금융컨설턴트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학교수나 연구원처럼 해당 분야에서 석사, 박사 등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직업들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든 예시 이외에도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을 가지는 경우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꼭 학력이나 자격,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쌓은 경우도 전문직이나 전문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전문직이란 딱 정해진 직업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어려운 공부를 해내거나, 시험을 통과하거나, 자격 또는 면허를 따서 실력이나 지식을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인 명예,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 분야에서 정해진 학력, 자격 또는 면허, 지식 및 기술 등의 능력을 키워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이나 긴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6. 진로·직업문제

# Q. 관심 있는 직업의 분야가 너무 달라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A.**

관심 있는 직업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분야라면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고 나머지 한 분야를 대안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직업의 분야가 너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직업 중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또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라면 좋아하는 정도(선호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겠구요. 선호도로 결정이 어렵다면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성격, 가치관 등을 다음 단계로 비교해보고 어떠한 분야 쪽으로 자신의 특성이 더 많이 일치되는지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 결과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자신의 내적특성과 더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한 직업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적인 특성만으로도 결정이 어렵다면 급여, 근무조건 등 각 분야의 외적 특성을 비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더 일치하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로 선택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 개인이 가진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의 직업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겠지요.**

## #7. 진로·직업문제

## Q.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포기해야 할까요?

**A.**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군요?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의견이 달라 고민이 많겠어요. 자신의 의견을 부모님이 무시한다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즉 직업명, 수행직무, 필요한 능력과 조건, 작업환경, 고용기회, 수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일에서 얻는 보람, 일을 통한 인생의 비전 등에 관해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을 설득하는데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 꿈을 갖게 된 동기나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언제나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길 바란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일을 하길 바라지요. 따라서 본인의 마음이 확고하고 그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직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은 후, 함께 결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부모님이 여전히 반대하신다면 다시 한 번 그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여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8. 진로·직업문제

## Q. 직업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A.**

직업 정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이 있습니다. 워크넷에는 우리나라 811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지식, 업무수행능력, 분야, 직종명 등의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별로 들어가면 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일, 교육· 자격·훈련, 임금 및 만족도, 전망, 필요한 능력·지식과 성격·가치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이 있습니다. 커리어넷은 초등학생부터 성인, 교사 등 대상별로 진로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진로상담도 실시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로진학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로진학정보센터(http://www.jinhak.or.kr)를 운영합니다. 이밖에도 검색 엔진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일부 부정확하거나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의 특성상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요.

추가적으로 직업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는 HRD-Net(직업정보훈련정보망) 또는 Q-Net(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격증, 훈련과정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한 정보들은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체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자보다는 소리나 시각으로 정보를 얻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라면 방송국에서 제작된 직업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직업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직업인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9. 진로·직업문제

## Q. 하고 싶은 직업과 이 전공이 잘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요.

**A.**

하고 싶은 직업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 직업을 위해 선택해야 할 전공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이 전공을 하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지요.

워크넷>직업·진로 섹션에 들어가면 관심 있는 직종의 직업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학과정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정보의 경우는 자신의 특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업의 하는 일, 필요한 교육과 자격 및 훈련,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뿐 아니라 관련 전공 및 유사전공을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공을 확인 한 후에는 그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학의 홈페이지는 전공의 특성, 졸업 후 진로, 지도교수님들의 전공분야, 취업정보 및 현황 등 그 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학과라도 배우는 과목 등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와 학과를 동시에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우고 싶은 전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궁금할 경우에는 학과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학과정보 검색을 통해 학과 소개, 적성과 흥미, 관련학과 및 교과목, 취득자격, 개설 대학, 진출 분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미처 알지 못했던 학과의 진출분야를 보고 관심 직종의 다양한 분야를 확인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 진로·직업문제

## Q.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A.**

타인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희망하는군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돕는 직업도 직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봉사와 간접적으로 돕는 봉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된 직업들을 알아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업분야의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합니다.

타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돕는 직업이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정적,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직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거나 각종 사회복지기관, NGO 단체, 구호단체 등에 입사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흔히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사회활동 중의 일부입니다. 내가 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것 이외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직업은 나를 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타인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기사는 운전을 하는 직업이지만 덕분에 일반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농부들은 채소를 키우지만 일반인들은 채소를 키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가족을 대신해 환자를 돕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행원이 금융 업무를 보는 것도 타인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들이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은 타인의 생활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있지만 직업 활동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타인을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11. 진로·직업문제

# Q. 사무직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전공이 필요하죠?

**A.**

미래의 원하는 분야를 사무직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사무직은 서류나 문서를 취급, 보관, 관리하는 일을 하며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사무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무직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마케팅, 기획, 홍보, 회계, 인사, 구매 자재, 영업 관리, 무역사무, 운송사무 등 다양한 종류의 직군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사무직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전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직이지만 무역사무 분야는 해외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와 관련된 능력이 우선시 될 수 있지만, 회계사무 분야의 경우 회사의 지출, 수입 등 자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우선시 됩니다.

사무분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일반적인 사무능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 분야 별로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이나 필요한 성격 특성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전공의 선택이나 대학 재학 중에도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사무직에 대한 정보는 직업정보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취업이나 직종 관련 카페와 동호회 등에서 수집해 보고, 우선 원하는 직업을 결정한 다음 관련 전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을 전공한다면 마케팅, 기획, 회계, 인사 등의 분야로 진출 가능합니다. 광고홍보학의 경우 광고 및 홍보시무원이나 마케팅사무원, 여론조사원 등의 분야로 진출 가능합니다. 무역·유통학과를 전공한다면 무역사무원, 운송사무원, 관세사무원, 총무사무원, 해외영업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직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컴퓨터와 관련된 워드프로세서, 비서, 유통관리사, 회계, 외국어와 관련된 자격증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증이 취업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을 할 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진로·직업문제

## Q. 전문직은 여유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던데 사실인가요?

**A.**

우선 전문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해 그 분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짐작을 해본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갖기까지 오랫동안 학업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게 되는 직무들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기 보다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어려운 직무들을 수행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일수록 변화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므로 전문직일수록 현재 일을 수행하면서 또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자기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하지만 모든 전문직들이 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직이라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에 필요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 #13. 진로·직업문제

## Q. 제가 관심 있는 직업의 실제 모습이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직업정보에 관한 책이나 직업 관련 사이트로부터 얻는 직업정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 직업심리검사 등 아무리 여러 가지 자료를 탐색해보고 많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직업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직업적 어려움과 보람까지도 알고 싶다면 '직업체험'을 해보는 것이 보다 그 직업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견학, 직업실습,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직장으로 실습을 내보내기도 하므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견학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부모님이나 친척 등 주변의 지인들이 다니는 회사를 방문해 실제 직업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해보기도 하고 직접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멘토를 만나 직접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멘토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직업을 일부분이나마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기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개발, 제작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에 응용하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게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체험방법이지만, 직업체험보다는 봉사가 주된 활동이므로 사회복지나 봉사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얻기보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나 태도 등을 체험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한국잡월드(www.koreajobworld.go.kr)'와 같은 모의 직업체험관을 방문하거나, 그 외 상공회의소, 국회, 법원, 기상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북촌문화센터, 서울시립미술관과 같은 공공기관, 문화방송·한국방송·에스비에스 등 방송사, 삼성어린이박물관과 같은 민간사설기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목표하는 직업에 맞게 모의 직업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정보를 탐색해보기 바랍니다.

## #14. 진로·직업문제

## Q.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은 너무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에요. 더 다양한 직업을 알고 싶어요.

**A.**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군요. 그런데 우선 특이한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특이한 직업은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하고 희귀한 직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이색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특이한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직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희망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은 **관심분야의 직업 중에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이한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내게 적합한 이색직업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신생 및 이색직업」 책자를 참고하거나 워크넷의 직업탐방 섹션 중 '눈길끄는 이색직업' 페이지를 참조한다면 남들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이색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특이한 직업이든 평범한 직업이든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는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업을 갖더라도 나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에 맞고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해도 나에게는 특별한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 #15. 진로·직업문제

## Q.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과를 나오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여러 가지 탐색과정을 거쳐 특정 직업에 대한 목표를 결정했다면 시작점 또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직업이 결정되면 그 직업과 관련된 학과의 범위나 계열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직업준비에 대한 계획 역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보의 탐색은 우선 명확한 학과정보와 특정 직업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흥미, 관련 전공, 직업전망, 평균임금 등의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학과정보와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목록을 검색해보고 자신의 성적이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학을 선택한다면 수능준비 등 입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격증이 특정 직업에 필수인 것인지, 플러스 요인이 되는 정도인지 또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파악이 되면, 대학진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인지, 대학 교육과정 이외의 국비 직업교육과정이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준비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단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직업과 관련된 정보도 훨씬 찾기가 수월합니다. 특정직업과 관련된 협회, 인터넷 카페, 취업사이트, 관련 뉴스나 인터뷰, 직업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블로그, 직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이를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습득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간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겠지요.

## #16. 진학문제

# Q. 학과를 결정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돼요.

**A.**

희망하는 학과를 결정했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군요. 우선은 어떤 이유 때문에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인지, 학과에 진학을 하면 공부는 어렵지 않을지, 졸업을 한 후 취업은 잘 될 것인지 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불안하고 걱정스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가요. 하지만 그런 불안함과 걱정은 학과공부를 잘 수행하기 위한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구체화 해나면서 줄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학과와 희망대학이 정해져 있다면 그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모두 각 학년별로 어떠한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지 과목들(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목록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선행학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교과목과 관련한 교양서나 기본서 등을 읽어보면서 간단한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며 학과나 관련 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그 학과가 잘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는 전과나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제도가 있어서 선택한 전공과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단,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고, 학교의 규칙을 잘 알아보고 몇 학년에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방법이긴 하지만, 편입을 하거나 재입학을 통해서도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직업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으므로 미리부터 학과선택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진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연관된 학과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함으로써 최대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 #17. 진학문제

## Q. 가고 싶은 학과가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A.**

학과 선택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고민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고민해야할 내용입니다.

둘째, 각 학과의 특성 및 교과과목 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취업 기회는 많은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학과 홈페이지, 워크넷의 학과정보 검색과 커리어넷 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 선배들의 조언, 각종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의 경로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과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이유들만을 가지고 여러 학과 중 하나를 선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기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파악, 학과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후회를 가장 최소화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 #18. 진학문제

## Q.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요. 일단 성적에 맞춰서 아무 학과나 들어가야 할까요?

**A.**

성적에 맞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진학이나 입시 관련 사이트에서 지난 년도의 입시결과 정보를 참고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이때는 해마다 수능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대학마다 전형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적만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학과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맞는 학과나 대학에 대한 결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전형방법이나 모집시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형요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에 맞춰 학과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힌 후에 그 안에서 학과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속한 계열과 연관있는 학과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과목이나 취미활동과 연관된 학과도 참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래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대의 시점에서 생각해서 진로를 역으로 탐색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직업, 진학하고 싶지 않은 학과를 정해서 그 직업과 학과들을 제외해 나가다보면 자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직업이나 전공으로 범위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의 범위를 좁혀놓아야만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 #19. 진학문제

## Q. 적성검사의 결과와 다른 학과로 진학하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A.**

적성검사의 결과가 희망하는 학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와 놀랐겠어요. 적성검사는 심리검사의 한 종류로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검사입니다. **검사결과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적성검사의 결과가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진로선택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성검사 결과지에서 추천된 학과나 직업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나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요인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각각의 요인들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학과정보에서 "컴퓨터공학과"를 검색해보면 이 학과에 필요한 적성으로 추리력, 창의력, 수리능력, 사고력 등의 적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학과에서 요구되는 적성요인을 파악한 후 적성검사결과에서 제시된 각 요인별 적성수준(점수)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적성이 너무 부족한 상태만 아니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흥미검사와 적성검사를 병행해서 그 수치를 해석해보면 학과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흥미검사, 적성검사를 모두 실시합니다. 두 번째, 흥미검사결과에 나타난 수치 중 흥미가 높은 유형과 관련된 분야의 학과정보와 직업정보를 탐색해봅니다. 세 번째, 흥미유형과 연관성이 높은 학과(직업)에서 필요한 적성(능력)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봅니다. 이와 같은 비교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과에 진학한 후에 앞으로 어떠한 적성은 더 보완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적성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노력해야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검사에서 제시된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미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측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검사결과는 실제 나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잘 몰랐던 나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 #20. 진학문제

## Q.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학교 또는 원하는 학과로 진학해야 할까요?

**A.**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해야 할까 말아야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재수에 대한 선택은 경제적 상황 등 개인적인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입시기간을 뒤돌아보고 이 과정을 1년 더 수행했을 때 나의 점수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최선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해오다가 시험 당일 몸이 아팠다거나 주변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능당일 성적이 낮아진 것이라면 아쉬움이 클 수도 있고, 재수를 해서 한번쯤은 더 시도해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수를 하는 기간은 1년의 수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성실함이 없었던 사람들은 준비기간이 더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새로 접할 수 있는 이성관계나 일탈 등 주변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겠지요. 또 "아.. 이 대학은 정말 못 다닐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없는 막연한 상태라면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정리해보면, **표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노력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재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번 시험의 결과가 최선이었다고 생각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학과 학과를 정해 진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뀌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 #21. 진학문제

## Q. 미래를 위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A.**

미래를 생각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로 진학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군요. 요즘 취업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위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학 전공은 졸업 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률 역시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가려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취업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물리보다는 사회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취업률만을 생각해 취업률이 높다는 공학계열의 학과에 진학한다면, 전공과목을 공부할 때 해당 전공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취업 후의 직업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후의 삶 역시 중요하므로 여러 요소 중에서 취업률만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졸업 후 전망은 어떠하고 졸업생은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등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포함하여 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선은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이 결정되면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비교적 쉬워집니다.**

최근 취업 시장의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교 또는 학과의 졸업이 취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가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 #22. 진학문제

## Q.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너무 늦은 걸까요?

**A.**

가급적이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최대한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진로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과정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잡게 되면 구체적인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대학 진학 후에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목표를 재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있어서 꼭 특정학과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 있는 학부를 선택한 뒤에 정보를 알아보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 선택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전과 등의 제도를 이용해 방향을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 부전공제도나 복수전공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아 진로 방향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엔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 인턴 참여, 공모전 참가,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과정, 어학인증시험 등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너무 상반되거나 차이가 나는 전공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간 뒤에도 얼마든지 진로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공의 차이를 보완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 시 전공 선택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하나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진로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택이 어렵다면 그 선택을 보류하고 조금 더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보고 자신과 잘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3. 진학문제

## Q.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로 유명한 학교를 알고 싶어요.

**A.**

가고 싶은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유명한 대학을 알고 싶다고요. “유명하다”라는 기준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특정대학을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알려진 대학들은 이미 관련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한 선배나 주변 지인의 조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진학상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학과는 서울대나 건국대, 미술 또는 디자인 분야는 국민대나 홍익대, 연극영화과는 중앙대, 동국대 등 하나의 브랜드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유명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대학들 외에도 훌륭한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아보고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이 더 잘 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의 취업 동향을 살펴보면 인지도 높은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자체로 취업이 보장된다기보다는 개개인이 특정분야에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발전시켜나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과 진로목표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대학 진학 후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대학의 유명세보다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 #24. 진학문제

**Q. 대학을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A.**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이 많겠어요. 혼란스럽겠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에 흥미나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대졸자들의 취업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대학을 가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먼저 대학을 진학했을 때와 진학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적게는 2년에서 일반적으로(요즘은 취업문제를 졸업을 휴학과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소 4년 이상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사회에 일찍 진출했으니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겠지요. 단점이라면 대학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반면, 대학에 진학하면 전공공부를 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사귀며 학과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도 쌓고 동시에 인맥도 만들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즘은 학비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나눠 장단점을 적어보고, 부모님과 친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생각을 잘 정리한다면 분명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25. 진학문제

## Q. 상위권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원하는 학과에 맞춰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A.**

고3 수험생들의 진학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좀 더 인지도가 높은 상위권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학과나 직업목표는 없어도 어떤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들 중에는 특정 전공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도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한 직업과 연관성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목표를 세우는 전략은 우선 희망직업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학과를 선택한 후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자신의 성적은 목표대학 희망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순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표대학 희망학과로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하다면 시험 전까지 필요한 만큼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해서 목표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학 이외에도 희망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과 그 학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성적수준을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두어야 하겠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 자체의 유명세만으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대학보다는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데 있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하며 전문성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 #26. 진학문제

**Q.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부모님은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갈 수 있는 학과에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비롯해 근무환경, 연봉, 직업안정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의 외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가족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닫기보다는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선은 충분히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스스로 혼란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특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학과나 직업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과 부모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후회할 가능성이 적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교과정과 분석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도 자신의 선택한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맞는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부모님의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대안을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설득을 해야 겠지요.** 예를 들어, 자신이 선택한 학과를 졸업한 후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말씀드리고, 그 직업들 중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 직업들의 예시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직업을 갖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이므로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되 선택의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하고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길 바랍니다.**

## #27. 진학문제

## Q.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 전문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4년제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

**A.**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중에 어떤 쪽이 더 낫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업에 따라 실무위주로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분야도 있고, 또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더 선호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를 더 많이 뽑는지, 4년제 졸업자를 더 많이 뽑는지 등을 알아본 후에 대학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 대한 인식이 전문대학 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혹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년제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이 잘되는 2년제 대학의 학과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선택하든 4년제를 선택하든 아무리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 할지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높은 취업률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단, 전문대와 4년제의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대의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식이나 이론 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기술습득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제의 경우 전문대의 실무 및 기술습득의 과정에 지식이나 이론 부분이 더욱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전문대의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했을 때 근무여건이나 조건들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의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단순히 2년제냐 4년제냐를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 #28. 진학문제

## Q. 서울에 있는 점수가 낮은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방 국립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A.**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 국립대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고민하고 있다고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서울 소재 대학이든 지방 국립대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학과에 따라 대학을 결정해야지, 대학에 맞춰 학과를 바꾸는 등의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지방에 있으면 좋지 않은 대학이라고 여기는 건 옳지 못합니다.**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중에는 교육과정이나 교수진이 지방 국립대보다 수준이 낮은 대학들도 있고, 지방 국립대는 입학금이나 등록금 면에서 서울의 사립대들 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우수한 교수진을 갖춘 대학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대학을 지역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취업이 더 유리한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할 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채용하려는 기업의 채용방식 때문이죠. 따라서 굳이 연고가 없는 곳으로 무리하게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사는 곳에서 원하는 대학을 찾고, 우수한 기업을 탐색해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자신이 목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나 직업, 경제적인 부분,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면을 신중히 고민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9. 진학문제

## Q. 원하는 학과에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원하는 학과로 대학에 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겠어요. 부모님께 좋은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정 형편을 걱정해야 하다니 정말 안쓰럽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렵겠지만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일을 하며 공부할 여유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목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나중에 직업을 가진 후에 갚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대학에는 장학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장학금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레 겁먹고 혼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의외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렵겠지만 선생님과도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분명 도움받을 정보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해야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노력해서 이루어야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꿈을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것,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0. 진학문제

## Q.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A.**

대학진학을 위해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중이시군요. 자기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에 적합한 흥미나 적성, 교육과정(교과과목), 개설대학, 관련자격 또는 면허, 진출 가능한 분야나 관련 직업, 취업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다음, 자신에게 어떤 전공이 잘 맞을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가 더 좋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과 정보를 알아봅시다.

직업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직업·진로 : www.work.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학과정보는 학과개요, 학과영역, 주요교과목, 개설대학, 적성과 흥미, 취득자격(국가자격, 민간자격), 진출직업/분야, 재학생 및 취업현황 등이 있으며, 진로상담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진로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커리어넷 : www.career.go.kr
커리어넷 대학교 학과정보에는 세부관련학과, 교육목표, 교육내용,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개설대학, 학과전망, 학생 수, 졸업 후 진로,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들은 비슷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사이트마다 특징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어느 한 사이트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이트를 모두 방문해보고 직업선택이나 학과선택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는 학과소개, 학과설립배경, 교육목표, 교육과정(커리큘럼), 진출분야, 자격증, 취업정보 등 그 학과의 고유한 특성이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는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학과 홍보 차원에서 운영

되므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멘토를 통해 생생한 학과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다니고 있거나 그 학과 졸업생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직업정보 및 학과정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들은 각 학과의 세세한 특징보다는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특징 위주로 제공되므로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멘토를 통한 정보탐색은 필요한 질문을 물어보고 답하면서 궁금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장점뿐 아니라 단점, 부정적인 면, 주의해야 할 점 등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도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엔진이나 지식공유 사이트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들은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 여러 누리꾼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비교,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학과탐방 프로그램,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 및 학과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과탐방,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학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직접 접해보고, 교수님의 설명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꼭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 직접 학교나 학과를 찾아가서 궁금한 점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등 위에서 정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면 어떤 학과로 가야하는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 학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취업 분야는 다양한지, 취업의 기회는 충분한지, 어떤 학과가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해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 진학문제

## Q. 문과는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가요?

**A.**

문과, 이과, 예체능과 같은 계열선택은 대학과 전공 선택 뿐 아니라, 직업선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과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계열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업이 잘 되거나 또는 잘 되지 않는 직업 및 산업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전망을 단순히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말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계열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의 취업 전망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특정 직업에 대해서 '취업이 쉽다 또는 어렵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분야의 취업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더라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분명치 않은 주변 이야기나 떠도는 소문만으로 계열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흥미란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재미를 느끼는지를 말하며, 적성은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흥미를 가지면서도 능력도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능력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흥미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계열을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또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이후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수능을 치거나 편입을 준비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열선택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성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 #32. 진학문제

# Q. 이공계열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지금 학생들의 경우 실제 취업은 최소 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며, 따라서 미래의 취업 전망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취업 전망을 단순히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등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고, 동일한 계열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 진출 시점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이 있다면 그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져서 취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도 있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공계열은 정말 취업이 잘 될까요? 일부 그런 학과들도 있지만, 이공계열 내에서도 모든 학과가 취업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공계열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는 취업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 본인이 이공계열로 나아가는데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열의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공계열은 크게 자연계열과 공학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자연계열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포함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할 줄 아는 학생, 집중력이 높고 남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학생에게 유리한 분야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과목을 좋아하고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연계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연현상의 기본적인 원리와 새로운 법칙을 탐구하는 영역으로 공학계열 학과와 달리 순수학문에 가까운 편이지만, 최근에는 자연계열 학과들도 첨단기술과의 결합으로 공학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의 학과들은 아파트 등의 주택에서부터 각종 가전제품과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계열입니다. 자연계열 학과들이 기초과학에 보다 충실하다면 공학계열 학과들은 기초과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부합니다. 때문에 응용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이공계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공계열의 취업률뿐 아니라 이 분야의 실제 전공과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면서 자신과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인된 학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워크넷의 학과정보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각 계열과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흥미와 적성, 교육과정, 졸업 후 진출 가능한 분야, 관련 직업 및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계열 및 학과에 대한 충분한 검색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워크넷 학과정보 검색>

■ 링크 ::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o

## #33. 진학문제

## Q. 자연계열 학과와 공학계열 학과 사이에서 고민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자연계열은 자연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개발하는 기초과학인 자연과학에 바탕을 둡니다.** 우주와 물질의 기원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세계의 원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죠. 자연계열에는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등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로 대학에 입학하면 먼저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 각 전공연구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며, 이론 과목과 함께 실험 및 실습을 병행하면서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자연계열 학과를 전공하려면 지나치기 쉬운 자연현상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호기심과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의 학과를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호기심이나 창의성, 탐구정신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학계열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일상생활을 비롯해 산업에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자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기계, 장치 등의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실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 분야로 구분되며, 공학계열에서는 공학의 기초 이론을 비롯해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험과 실습을 병행하는 공부가 이뤄집니다. 또한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배우는 내용은 전공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두는 응용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공학계열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과학적인 탐구 자세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력과 분석능력이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조

## #34. 진학문제

## Q. 사회과학계열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졸업하면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나요?

**A.**

**사회과학계열은 사회의 여러 모든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에 바탕을 둡니다.** 개인 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학교마다 사회과학대학, 정경대학, 문과대학에 포함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관광학과,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을 사회과학계열 학과로 분류합니다.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법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는 보통 사회과학계열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졸업 후 진출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은행,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광고 기획사와 같이 언론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로 진출하거나 연구소, 사회여론조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학계열에 속한 학과에 따라 진출분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학과별 진출분야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학과정보 확인은 워크넷의 학과정보 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 메뉴(아래 링크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과정보의 하위 메뉴인 '진출분야'를 클릭하면 각 학과별 진출직업과 분야,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과정보**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o

## #35. 진학문제

# Q. 문과지만 간호대에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 A.

문과계열에서 간호대에 진학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과에서 이과로 계열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미 문과로 결정한 상황에서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 이과로 바꾸기 전에 스스로 꼭 간호대에 가고자 하는지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학교 측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문과계열로 간호대에 진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차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문과 교차지원 전형이 따로 있는 학교와 이과와 문과 구분 없이 통합으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입시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교차지원이 허용되는 대학과 수능점수 반영과목을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며, 교차지원 시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대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문과에서도 간호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간호전문대 졸업 후 4년제 학위취득을 원한다면 간호독학사 시험응시, RN-BSN(편입),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한 다음, 전과제도를 이용하여 간호학과로 전과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선발인원이 적고 기존 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시에만 가능하므로,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호학과 개설대학은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메뉴에서 간호학과로 검색하면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간호학과 개설대학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04.do?empCurtState1Id=6&empCurtState2Id=4

## #36. 진학문제

# Q. 외국어를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어문계열에 진학하면 해당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오히려 어문계열은 직업선택의 폭이 넓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언론인, 교사, 공무원, 통·번역사, 외국어강사, 연구원, 사무원, 법무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언론, 출판계에 진출하거나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학자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관, 각급 학교의 교사, 기타 기업체, 공공기관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고, 기획 및 제작자, 작가 및 연출자, 문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번역사의 경우 전공을 살린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의 '해외영업' 직무에서는 어문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근래에는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비지니스 마인드'를 가진 어문계열 전공자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만 한정지어서 진출분야를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직무지식을 함께 쌓는 방식으로 진출 가능한 분야를 넓혀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외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마케팅 공부를 병행해 두 가지를 다 응용할 수 있는 진출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학과정보와 함께 학과별 진출분야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정보는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 메뉴에서 '계열별 검색'→'인문계열'을 클릭하시면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각각의 전공명을 클릭하면 해당 학과와 '진출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인문계열 학과정보**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o?code=1

#37. 진학문제

## Q. 정보보안 관련 학과의 전망은 어떤가요? 졸업 후의 진출분야도 궁금합니다.

**A.**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저장된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정보보안은 우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문제이며, 더욱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는 국가안보 또는 국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IT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확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의 집단 유출을 이유로 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업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도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단순한 정보보호가 아니라 총체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보보안전문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보안전문가의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며, 관련 학과인 정보보안 관련 학과의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정보보안 관련 공부를 하고 진출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보안제품 개발업체,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보안 관련 부서 등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소 상이한 편입니다. 즉, 정보보호 전문업체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컨설팅, 시스템·네트워크·DBMS·애플리케이션 등의 취약점 분석·모의해킹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보안제품 개발업체에서는 제품개발, 품질관리,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 보안제품 도입 및 운영, 보안교육, 보안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나 보안부서의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안 관련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38. 진학문제

## Q. 심리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직관이 아닌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죠.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연구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심리학은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심리학'에는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물심리학, 사회심리학, 언어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응용심리학'은 개인의 정신이나 행동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 및 상담심리학과 산업체나 기타 조직 장면에서 능률과 적응에 관여하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계량화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인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험, 심리검사, 통계분석 등에 대한 연구방법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는 상담전문가,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심리치료사, 프로파일러,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중독치료전문가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자료처리원, 마케팅사무원, 심리학연구원 경력개발컨설턴트, 취업컨설턴트, 직업상담사, 인사 및 노무관리전문가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분야로는 광고대행사, 컨설팅업체, 리서치회사, 병원, 심리검사연구소, 각종 상담기관 학교의 상담교사 및 대학교의 상담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도직 공무원(교도소, 소년원),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적인 심리학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심리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분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원 석사 이상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 페이지에서 심리학과를 검색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심리학과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do?empCurtState1Id=1&empCurtState2Id=14

#39. 진학문제

## Q. 농업계열의 학과를 나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농업학은 크게 농학과 축산학으로 구분됩니다. 농학은 식량, 사료용·공업용·약용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개량연구 및 기술개발, 병충해 등을 연구합니다. '농학'은 크게 농작물을 연구하는 '농학과'와 농작물 생산을 돕는 농업기계에 대해 공부하는 '농업기계공학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산학'은 가축 및 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처리 등 축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연구하며, 크게 가축증식과 개량, 낙농생산물 등을 연구하는 분야와 축산식품의 가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는 '축산가공학과' 등을 포함합니다.

농업학과는 삶과 연관된 식품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과 분야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농업기술자, 산림기술자, 나무치료사, 육종기술자, 영림자문가, 조림자문가, 원예기술자, 육림기술자, 식품공학기술자, 가공식품개발원, 식품분석연구원, 김치연구원, 발효식품연구원, 천연식품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생명과학시험원, 식품검역관, 가축사육자, 농업계열 교사 등이 있습니다.

진출분야로는 농어촌 및 농수산물 관련 공공기관, 종묘회사, 비료회사, 농약회사, 식품가공 및 유통업체, 농축산물무역회사, 농업기계 제조 및 판매회사, 육가공회사, 유가공회사, 동물약품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개발연구소, 식품위생연구소, 작물과학원, 농업관련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중앙정보 및 지방자치단체(농업직, 축산직, 기계직, 토목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 페이지에서 농업학과를 검색하면 농업계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학과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do?empCurtState1Id=4&empCurtState2Id=1

#40. 진학문제

## Q.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 중 어떤 학과의 전망이 더 좋은가요?

**A.**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전망은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 등 경제 여건과 산업 전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비슷한 직업전망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할 때는 두 분야의 전망을 고려함과 동시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 차원에서 진로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흥미와 적성의 측면에서 두 학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계공학 분야는 각종 산업기계와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탐구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뿌리가 된다고 할 만큼 응용 분야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최근에는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 등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이들 학문을 결합한 메카트로닉스공학, 제어계측공학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자동판매기, 게임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고 작은 기계장치에서부터 대형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한 만큼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 전자 등에도 흥미가 있고, 탐구심이 많은 학생에게 유리한 전공입니다. 기계공학의 기본이 되는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자동차나 기계에 대한 작동원리 등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전자공학은 컴퓨터, 반도체, 정보, 유무선 통신, 가전, 로보틱스, 영상 분야 등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트렌지스터 등의 가전제품으로 실용화됩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정보화, 자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전자공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 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합니다. '전기공학'이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 대해 탐구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분야라면, '전자공학'은 고체, 기체. 진공 내에서의 전자운동을 탐구하여 반도체, 전자회로, 통신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들 모두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전기, 전자를 결합한 학부, 혹은 학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공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수학, 물리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41. 진학문제

## Q.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경영학은 기업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의 행동방식을 분석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실용 위주의 학문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본질과 운영방식, 경영전략 등을 연구합니다. 경영학과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마케팅, 회계, 재무관리, 인사관리, 경영정보 등 각 분야의 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합니다. 기업경영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서 판매할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경영학과는 기업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경영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은 경제생활의 주역인 가계와 기업,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관계 등에 대해 배웁니다. 좁게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부터 넓게는 소득불균형문제, 실업문제, 환경문제 등을 연구합니다. 경제학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 등의 '이론경제학', 경제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경제사', 경제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상사',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응용경제학'으로 구분됩니다. 또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경제정책을 연구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원리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배분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학과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학과는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기업의 경영에 포커스를 둔다는 점에서 경제학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기업뿐 아니라 가계를 비롯해 국가의 경제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보다 연구범위와 응용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출분야도 차이가 있는데, 경영학 전공자들은 주로 기업체로 진출하는 반면, 경제학 전공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소 등으로의 진출이 활발한 편입니다.

## #42. 진학문제

## Q. 교대나 사범대를 갈 성적이 되지 않는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 중등교사의 경우 사범대학을 가야 하죠. 하지만 교사가 되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나 사범대가 아닐 경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직이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비사범대 경우에는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승인인원이 다르며 일부 학교는 비사범대 교직이수를 폐지하였으니, 학교별 정보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교직이수 선발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 페이지에서 교육학과로 검색하시면 개설대학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학과 개설대학 목록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04.do?empCurtState1Id=3&empCurtState2Id=1

**두 번째 방법은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 교육대학원을 통해서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취득이 가능하지만, 관련 학과(전공) 졸업자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니 각 대학원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교대는 2008년 이후 편입학이 폐지되었으나, 한국교원대학교는 일반편입이 가능합니다. 전적 대학교 성적, 공인영어 성적,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자격요건과 선발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편입을 할 때는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 자격요건과 선발인원 등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가능하면 지금부터 성적을 올려서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43. 진학문제

## Q.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와 지방 국립대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A.**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와 지방 국립대 중 어디가 낫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 선택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흥미나 적성 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학교라면 본교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우수한 교수진 등 면학여건이 좋은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각 대학마다 또는 학과마다 다르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가 됩니다. 즉, 희망하는 학과를 결정한 후에 해당 학과 공부를 하는데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로 유명한 학교가 지방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고, 또 기회가 있다면 본교로 편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국립대에 설치되어 있고 학업여건이 우수하다면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정리하자면,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가 좋은지, 지방 국립대가 좋은지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알아보고 그 분야에서 더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차후 편입 의사가 있는지, 본인이 학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44. 진학문제

## Q. 가고 싶은 학과가 있지만 어려운 과목도 있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

특정 학과로 진학할 경우에 해당 학과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그 학과에 가서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진로선택에 고민스러운 마음이 들겠지요. 예를 들어, 이공계 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자신이 없다면 고민이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진로선택을 위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 없고 부담스러운 과목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과목을 얼마나 잘 하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정도라면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해당 과목의 성적은 다소 낮더라도 과목에 대한 흥미가 매우 커서 공부가 즐겁다면 차후에는 공부한 내용들이 쌓여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과목의 성적이 도무지 오를 것 같지 않거나 너무 흥미가 없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진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직업을 위해 진학해야 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과에서 내가 부담스러워 하는 그 과목의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학과에 진학해서도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은 해당 분야에 큰 흥미나 소질이 없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OO학과를 나오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더라' 또는 '취업이 잘 된다더라'는 말만 듣고 막연한 동경이나 편견을 갖고 진학하려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분야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심이 아니라, 주변의 권유나 떠도는 이야기에 의존해 흥미도 크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은 분야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되는 과목에 대해서 노력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자신이 그 분야에 뚜렷한 흥미가 있다면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흥미가 확고하면 열정과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 #45. 진학문제

**Q.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일반적인 학과 대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방 소재 학과(의대, 약대, 사대 등)로 진학하는 게 나을까요?**

**A.**

요즘 대졸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학과선택을 할 때도 졸업하고 어디로 취업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취업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지요. 따라서 취업과 관련된 학과선택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의대나 약대, 사대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취업만을 의식해서 의대나 약대, 사대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인지 아닌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취업 가능성만 놓고 해당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해당 분야와 일치한다면 전문 분야의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가 지방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에 비해서 다른 진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학과 공부 외에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힘든 수련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런 학업이나 수련과정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설령 진학에 성공하더라도 대학생활이 매우 힘들고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 진학을 단순히 서울 소재의 대학이냐, 지방 소재 전문직 학과냐를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과 중에서도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학과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로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과선택을 했을 때 학업공부도 재미있고 졸업 후 목표도 분명하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 #46. 진학문제

# Q. 앞으로 유망한 학과에 대해 알고 싶어요.

## A.

많은 학교와 학과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과선택은 미래의 직업선택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수능시험만 잘 본다고 입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가 앞으로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지,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과의 전망은 학과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망학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망학과는 향후 5년에서 10년 후 유망한 산업분야와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의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과 직업을 중심으로 유망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망학과라고 해서 100% 확실히 취업도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망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유망학과로 우르르 몰려가서 진학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망학과에 유망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선택한 분야에서 유망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잘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할 때부터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성은 무시한 채,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느 학과가 취직이 잘 된다고 하면 유행처럼 지원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처럼 유망학과라는 이유만으로 학과를 선택했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수업방식, 졸업 후의 진출분야 및 관련 직업 등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진학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유망하다고 평가하는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각 대학 해당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졸업 후의 진로나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 #47. 진학문제

# Q. 새로 생겨나거나 특이한 학과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요?

## A.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각 대학에서 신생학과와 이색학과들을 홍보하며 수험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합니다. 똑같은 것은 왠지 지겹고 새롭고 특이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신생학과와 이색학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신생학과나 이색학과는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전문대학에 주로 개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학과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학과와 이색학과에 대한 장점이 너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여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직의 기회가 많은지, 학교의 교수진이나 교육과정들은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새로 생겨나거나 특이한 학과에 대한 정보는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학과정보검색-이색학과 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 과학, 보건, 문화, 경영 등의 분야별로 관련학과가 안내되어 있고, 각 과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개설대학, 진출분야 및 직업 등의 정보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 워크넷 이색학과 정보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expSpecial.do

주의할 점은 신생·이색학과라고 해서 막연한 관심으로 학과선택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특성과 관심사를 함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48. 진학문제

## Q. 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학과와 관련된 설명회나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상세한 학과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에 정리된 방법에 따라 정보검색을 하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학과정보 검색>

☞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o

1. 키워드로 학과찾기

학과정보 검색→키워드로 학과찾기('경영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키워드 연관 학과 목록 확인

2. 조건별 검색

학과정보 검색→학과계열 또는 취업률 조건을 선택→조건에 맞는 학과 목록 확인

3. 계열별 검색

학과정보 검색→계열별 검색→인문,사회,교육,자연,공학,의약,예체능계열 중 선택→계열별 학과 목록 확인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면 학과별 상세한 관련학과/교과목, 개설대학, 진출분야, 취업현황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개설대학' 페이지에서 학교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진출분야' 페이지에서 '관련직업'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직업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편, 학과설명회는 일반적으로 대학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각 단과대학별 혹은 과별로 진행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교사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정보'에서는 설명회 및 박람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ssam.kcue.or.kr/fair/listFairMonth.do

#49. 진학문제

## Q. 대학 입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학 입시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학의 면접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대학별 공통질문들에 대해서는 예상리스트를 만들어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고사장을 들어가면서부터 면접은 시작되며,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 겸손함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미소를 띠고 자신감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 표정까지 하나하나 면접관들은 관찰하고 있으므로 모의면접을 통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한 뒤 이유나 설명을 덧붙인다면 면접관들이 보다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한 후에 또박또박 말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설 입시정보 사이트를 통해 면접 자료 등 입시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이트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가려서 받아들이기를 당부합니다.

#50. 진학문제

## Q. 편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편입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편입은 전문대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해 70~80학점을 이수하거나, 4년제에서 4학기 이상 수료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과 정원 내 모집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결원을 확인한 후 편입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사편입은 일반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4년제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받았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편입이 학사편입 보다 경쟁률이 높고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전적 대학에서 이수해야하는 학점과 자격조건이 대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지원 전에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는 계열과 무관하지만 일부 대학교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대부분 편입영어+전적대성적+면접을 통해 선발하지만, 편입영어 대신 전공시험, 공인영어 성적, 수학, 계열기초시험으로도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학교에서도 학과별로 전형방법이 다르고, 매년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이 편입을 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